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조 은 경(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정 혜 정(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 적응의 남녀간 차이, 둘째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 셋째 자아분화 수준이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성 332명, 기혼여성 355명으로 총 687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자아분화 수준은 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결혼 적응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분화 수준은 정서적 반응과 자기 입장, 타인과의 융합에서, 결혼 적응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서적 반응의 정도와 정서적 단절의 정도가 낮은 집단, 자기 입장 유지 능력 수준과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안정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정서적 단절의 정도가 낮은 집단,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높았다. 셋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가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연령으로 나타났고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 자기 입장, 타인과의 융합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과의 융합이었으며, 결혼안정성은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은 자아분화 수준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자아분화 수준이 결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결혼 적응을 위해서는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 교육이나 가족생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